

통합 ICT 기술력 독보적... 스마트도시 구현 '매진'



14년만에 매출 300억·신용 A등급
야간 장거리 특화 CCTV 대표 제품
설계·시공·유지보수 통합솔루션
AIoT 기술 기반 해외 경쟁력 강화

미래도시를 그린 '매트릭스',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인류가 그동안 상상해온 것들로 가득하다. 영화는 고도로 발전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화 속 첨단과학기술로 가득한 미래 도시는 인류가 바라고 있는 모습 그 자체다. 교통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 침입자를 차단하며, 대기가 오염될 경우 공기를 자동 정화하고 유입을 막는 등의 기술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강소기업 엔에이치네트웍스(주)는 이러한 '스마트도시' 구현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지역 기업이다.

◇통합 ICT 독보적 기업-AI 기반 맞춤형 시스템 구축=지난 2011년 설립한 엔에이치네트웍스는 연 매출 300억 원, 신용등급 'A등급'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엔에이치네트웍스를 대표하는 제품은 CCTV다. 야간에도 최대 500m까지 식별이 가능한 성능을 가진 것은 물론, 얼굴을 인식하고 교통상황과 이동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품도 여럿이다. 또 재난현장과 건설현장, 인간의 경계가 어려운 곳에서 원격으로 감시 혹은 관제가 가능한 이동식 트래일캠도 생산한다.

엔에이치네트웍스는 주요 제품군의 개발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을 통해 확보한 영상의 분석, 첨단 관제센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자체 제조 공장과 'SMT' (Surface Mount Technology) 라인을 갖

추며,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했다. 또 AI 기반 영상 솔루션 및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머신비전' (Machine vision·딥러닝)을 통한 기기 스스로의 데이터 분석 및 작동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 시티 구축 선도기업=AI 기술을 접목한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개발은 엔에이치네트웍스의 강점 중 하나다. '스마트그리드' (전기가 흐르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도로의 이벤트 분석 기술을 개발, 사고 발생 시 전광판이나 스피커를 통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관제사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최근 '케중' 현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전자 회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첨단 IT 기술과 도시 기반 시설의 융합을 통해 도시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 시범 도시 사업과 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서 7대 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설계를 완수했으며, 국내 수십개의 지자체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 스마트 도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제어, 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교통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엔에이치네트웍스(주)는 국방부와 환경, 보안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첨단 보안 장비와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트워크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내·외부 보안을 강화하며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광주 넘어 세계로-2025년 글로벌 ICT 기업도 약=엔에이치네트웍스는 올해 해외 수출 달성을 목표로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기반 스마트 도시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근신 대표이사

안전 서비스와 기술을 현지화에 대한 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CTV 완제품과 부품을 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생산라인을 구축 하며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엔에이치네트웍스(주)의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이 결합된 이번 사업 확장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기술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신 엔에이치네트웍스(주) 대표는 "미래형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 그리고 기술력을 강화하며 ICT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엔에이치네트웍스 공장 제품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CCTV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엔에이치네트웍스 사옥 1층에 마련된 쇼룸.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촌각에 생명 살리는 기적... '자동심장충격기' 최강자



위급 상황 발생시 심장 리듬 복구
광주과학기술원 공동 개발 특허 30건
전국에 영업점...4만5000대 공급
유럽 등 세계서도 기술력 인정

#. 지난해 3월 순천의 한 보건지소에서 건강검진을 기다리던 7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노인은 희미하게 호흡을 하게 있었는데, 몸 안에 산소공급이 안 될때 나타나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심장질환이 의심됐다. 노인을 발견한 보건지소 관계자들은 소방서에 신고한 뒤 보건지소 내부에 설치된 심장자동충격기를 사용해 전기 충격을 가했다. 몇차례에 걸쳐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한 끝에 노인은 의식을 회복했고,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 지난해 11월 전북의 한 국립공원에서 산행 중이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었다. 남성의 일행들은 주변 등산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한 등산객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케어블 정류장에 설치된 심장자동충격기를 활용해 쓰러진 남성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남성이 쓰러진 곳은 해발 약 800m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등산객과 심장자동충격기가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는 모두 3만3586건, 비정상적인 호흡 및 부정맥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다. 심장지는 응급처치, 즉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안에 인공호흡 또는 심장자동충격기를 사용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생명을 잃는 경우나 장애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심장자동충격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중요

성에 걸 맞게 최근 법률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3월과 11월 각각 순천과 전북에서 일어난 심장지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킨 심장자동충격기였는데, 모두 ㈜나눔테크 제품이다. (주)나눔테크(광주시 북구 첨단벤처소로)는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으로, 지난 2005년 8월 설립됐다. 심장자동충격기의 필요성이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눔테크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심장자동충격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심전도 파형을 분석하고 심정지 여부를 판단해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 리듬을 복구시키는 응급의료기기다.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였지만 어느새 법률 강화 등 이유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나눔테크는 타 제품 대비 월등한 성능과 유지보수 서비스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눔테크 심장제세동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원천 기술 등 높은 기술력과 연구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통해 3년의 시간을 소요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제품 관련 30여건이 넘는 특허와 함께 전국 각 광역시·도별 하루 조식을 포함해 약 100여 곳의 영업점을 구축했다. 나눔테크는 지금까지 전국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심장자동충격기 4만5000여대를 공급했다. 국내 심장자동충격기 생산 기업 중 가장 많은 양이다.

지난해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돼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심장제세동기를 개발·특허 신청을 앞두고 있다.

나눔테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선보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나눔테크는 KGMP, KFPA, CE, ISO13485, SFDA, Anvisa 등 다양한 국내외 인증서 획득했고, 유럽인증 MDR을 갱신 중에 있다.

현재 국내 심장자동충격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눔테크의 성공 배경에는 창업자 최무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진 대표의 '선구안'이 있었다. 과거 의료기기 업계에 종사자였던 최 대표는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눔테크를 세웠다.

창업 초기 풀다공증 검사기기를 주력으로 제조·판매하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 심장제세동기를 제조를 마음먹었다. 풀다공증 검사기기는 전문의 로그기에서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발 빠른 대처였다.

나눔테크는 기존 풀다공증 제조에 주력하던 때와 비교해 심장자동충격기를 제조하면서 매출이 500% 이상 증가했고 직원수도 10명에서 62명까지 늘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다는 생각보다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진정성이 제품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최 대표의 설명이다.

국내 시장을 석권한 최 대표의 다음 목표는 응급 의료제품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다. 그의 시선은 일본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향

했다. 수년 안에 50여 개국에 수출이 목표다.

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겨냥해,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심장제세동기를 개발·특허 신청 또한 앞두고 있으며 거북목 등 목 관련 질병 증가를 염두해 경추 마사지기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최 대표는 생명존중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기업 운영 가치로 둔만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아동복지기금, 심장재단 연계 청년 심장수술 지원, 교육기관 발전기금 기탁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눔테크는 '나눔명문기업'에도 가입했다.

최무진 대표는 "촌각을 닦는 위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명품 응급의료제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테크 '자동심장충격기'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